

읽은 것이 없으면 권할 수도 없다

어효선

아동문학가

오십년 전, 내가 여남은 살 적에는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이 흔치 않았다. 한글로 된 책은 거의 없었고, 일본말로 된 읽을거리도 눈에 띄지 않았다. 책이라고는 교과서와 참고서뿐이었다, 중학생이 되면서 형이나 어른이 읽는 책을 떠들어보게 되었다. 애기책과 신소설, 한자 많이 섞인 우리 책과 일본 책들을, 알며 모르며 이것저것 잡히는 대로 읽었다.

그때고 이때고, 몸 튼튼한 장난꾼들은 나가 놀고, 싸질러다니며 시간을 보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흔해빠진 라디오도 그때는 집집마다 없었고, 낫방송도 안했으니, 심심을 책으로 풀 수밖에 없었다. 정도가 높은 책이라도 자꾸 읽다보니, 문리가 터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사물을 깊이 생각하게도 되었다.

책을 한번 재미를 붙이니, 돈푼이 생기면 책사(서점)로 달려가고, 군것질을 줄이고 책을 샀다. 또 사고 싶은 책이 있으면 누가 먼저 사 갈까보아 안달을 하다가, 어른을 졸라 책값을 뜯어내기도 했다. 그때, 서점은 서울 종로에 서너 집, 관훈동에 고본점 서너 집, 일본책은 본정(충무로)에 예닐곱 집 있었는데 냇집은 고본집이었다. 우리가 자주 간 데는 본정이었다. 갑갑하면, 이 서점을 돌았다.

같은 책이라도 값이 싼 것을 취해 한 권이라도 더 사려고 했고, 이것저것 마구 읽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덕을 톡톡히 보는 것 같다. 남독이 나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이 과정을 거치느라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전공도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지금은 독서할 시간을 빼앗는 것이 너무 많고, 된 것 안 된 것 책이 너무 많아서 탈이다.

나는 이따금 젊은 어머니에게서 질문을 받고, 난처해 한다. 아기에게 무슨 책부터 읽히면 좋겠느냐는 것이다.

“어머니께서 어릴 적에 재미있게 읽으셨거나, 감명을 받으신 그 책부터 읽히시지요.”

이렇게 대답한다.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다면, 남에게 묻지 않을 것이다. 읽은 것이 없으면, 권할 수 없다. 그래서, 또 물을 수밖에. 이런 때, 어떻게 속 시원히 대답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많은 책 중에서, 어떻게 한두권을 꼭 집어낸단 말인가.

“고루고루 읽히세요.”

남독을 권하고 만다.

어려서는 남독을 하고, 젊어서는 필요한 것만 가려서 읽게 된다. 이런 일 저런 일이 걸려서, 많이 읽을 수가 없다. 오륙십 되면, 젊었을 적 같지 않아, 꼭 읽어야 할 책도 책장이 잘 넘어가지를 않는다. 모든 일이 때가 있다고, 젊음을 돌이킬 수 없다.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뭘 아는 것이 있다면, 내 나름의 무슨 생각이 있다면, 그건 어려서, 젊어서 읽은 책 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와서, 더 많은 것을 알려 한다면, 그건 욕심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독서를 포기할 수는 없다.

한 삼십 년 전에 어느 대학생이, 책 2천권을 읽었노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가 국민학교 5~6학년 때부터 읽었다고 치면, 한 10년이다. 1년에 200권, 한 달에 16~17권, 일주일에 4권, 이틀에 1권 남짓 풀이다. 참으로 놀라운 숫자요, 참으로 장한 일이다. 그는 저서를 많이 내어, 해외에까지 알려진 우리나라의 지성으로, 문화의 책임을 지게 된 것은, 그가 젊어서 읽었다는 2000권의 덕이 아닐까!

누군가가 말했다. 사람은 그가 젊어서 읽은 책 덕으로 살고, 늙어서는 그 이자를 받아서 산다고.

- | | | |
|----------|----|--|
| 아동도서특집 | 2 | 아동문화의 흐름 이끄는 아동도서를 — 조대현
우리나라 아동도서출판의 네가지 문제점 |
| | 4 | 아이들은 어떤 책을 좋아하나 — 한운옥
도서관 貸書상황의 내용 및 유형분석 |
| | 6 | 학교 '밖'에서 봄 이루는 책임기 교육
어린이 독서교실 성업중... 문제는 없는가 |
| | 8 | 아동도서추천목록, 무엇이 문제인가
선정도서 필요성 증대 불구 긍정성 시비 여전 |
| | 10 |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어릴적 이 한권의 책
이광주/이만익/이오덕/김성근/송 현
정진규/김종해/송광섭/최종고/정종명
이계경/김병준/김인회/고원정/이세룡
고정희/박시교 |
| | 15 | 부모도 아이들도 '책찾기'가 어렵다
서점매장의 아동도서 디스플레이 제대로 돼 있나 |
| 이 책 그 사람 | 16 | 「돈의 여행」 펴낸 이슬기씨
「똥똥이 안경」의 작가 조한순씨 |
| | 17 | 「어머니의 눈물」의 작가 정두리씨
「모래알 한가운데」 펴낸 정채봉씨 |
| 서평 | 18 | 한영우 외 「한국사특강」 — 박성봉
김광수 「논리와 비판적 사고」 — 이좌용 |
| | 19 | 박병태 「古代國語學研究」 — 김민수
김명호 「熱河日記研究」 — 박기석 |
| | 20 | 김진균 외 「한국사회론」 — 박길성
소콜로프 「여성노동시장이론」 — 박세일 |
| | 21 | 원종의 「환경오염」 — 박창근
박상룡 「七祖語論」 — 서정기 |
| 세계의 출판 | 22 | 세계거물의 가족사로 본 미국사·외 |
| 컬러서가 | 24 | 아동문학가 손동인씨의 書架 |
| 독자서평 | 26 | 강혜경/강호경/서상우/현근식 |
| | 28 | 청소년이 읽을만한 책 |
| | 30 | 신간안내 |
| | 38 | 200자 안내/화제의 책/이색출판 |
| | 40 | 신간목록 |
| | 47 | 일간지 출판기사색인 |
| | 48 | 프리즘/독서퀴즈/정기구독안내 |